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9~4/2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비스님의발심수행장강의	무비스님	(주)계정출판사	6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박진여	김영사
2	붓다가말하는인간관계의지혜	마태이슈/행	문예출판사	7	지금여기깨어있기	법륜	정토
3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 최인호	여백	8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가없다	수신오도	서유수
4	불교기독교를논하다	이재열	모과나무	9	행복한불교이야기(오대산정법스님이 들려주는)	자현	담앤북스
5	붓다의과학이야기	김성철	참글세상	10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지유	불광출판사



## 3500년의 역사를 지닌 수행처, 석굴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올해 4월 24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 성철 스님 기념관이 정식 개관됐다. 대리석 기둥과 벽돌 벽으로 꾸민 독특한 외관의 성철 스님 기념관은 석굴을 보 티프로 조성됐다. 청빈한 수행자로 살다가 신 이유로 전신물이라고 내놓을 것이 거의 없던 차에, 과거 스님들 수행처인 중국의 불교 석굴을 참고했다는 것이 성철 스님의 상좌 원택 스님의 말이다.

석굴은 BC 1500년 경 베다시대부터 인도 종교 수행자들이 거처한 일반적인 공간이었다.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수행을 위해 석굴을 찾은 수행자들이 많았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산속 석굴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는 기후인 인도서 여름엔 시원하고 비를 피할 수 있으며, 추운 겨울엔 따뜻한 장점을 갖고 있으니, 이보다 좋은 곳을 찾기 힘들었다. 고대 인도 사람들이 산을 간 세상과 천상을 연결해 주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긴 것도 석굴이 활발히 조성된 이유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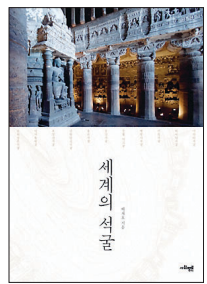
시간이 지나 인도 몸바이 지역을 중심으로 무억 거점이 들어서고,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진출로 간다라 미술이 형성되면서 대규모의 석굴사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부와 고대 그리스의 거대한 신전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석굴은 개인적인 수행처이면서 동시에 집사 대중의 신앙을 확인 공간으로 발전했다. 특히 불교는 석굴과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존하는 인도 석굴사원 중 불교 석굴이 1,300여 곳으로 가장 많으며, 석굴암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석굴도 불교 석굴이 많다. 불교가 인도를 넘어 중앙아시아, 중국 등으로 전파되면서 불교 석굴 역시 그 길을 따라 조성되었다. <세계의 석굴>은 이처럼 조성된 세계 곳곳의 불교 석굴을 한데 모아 소개한 책이다.

다양한 부처 얼굴... 조성 시대 상황 달라 각 석굴은 석굴이 조성된 시대적 상황이 나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모두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서로 모양이 천차만별인 듯들이기 때문이다. 규모와 종류 면에서 다양한 석굴을 볼 기회가 없는 독자들에게 <세



26굴의 기둥 뒤에 세워진 열반상 모습.



**세계의 석굴**  
배재호 지음  
사회평론 펴냄  
2만 5천원

계의 석굴>은 석굴암을 벗어나 새로운 석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은 불교미술의 최고봉인 아잔타석굴로 시작해 한국의 군위삼존석굴까지 16개의 석굴을 다루는데, (15장에서는 용문석굴 신라상감과 한국의 군위삼존석굴 두 석굴을 함께 다룬다) 읽다보면 각 석굴의 다양한 모습에 놀라게 된다.

잃어버린 세계문화유산의 대명사가 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석굴에서는 38m나 되는 거대한 불상인 동대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는 중국 둔황 마고굴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벽화를, 운강석굴에서는 나란히 불어 비슷한 내부 구조를 가진 쌍굴을, 용문석굴에서는 조성 당시 권력자인 측천무후의 얼굴을 한 불상을 만난다. 효율 강조하는 유교 사상이 불교와 혼합된 보정

석굴은 인도 수행자들 거처 공간  
인도 석굴 사원 중 불교 석굴 1,300곳  
아잔타서 군위삼존불 등 16개 소개  
석굴은 불교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

산석굴과 밀교화된 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안서 유림굴 역시 색다른 석굴이다. 비슷한 모습의 중국 용문석굴의 신라상감과 석굴암보다 100여년 앞선 군위삼존석굴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석굴,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그릇  
석굴이 다양한 지역과 시대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보니, 석굴이라는 소재는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세계의 석굴>에서 다루는 16개의 석굴은 세계의 석굴 중에서도 불교의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낸다.

각 장은 하나의 석굴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해당 석굴을 답사했을 때 느낀 저자의 느낌과 전반적인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석굴 안의 불상, 보살상 등 몇 가지 특징있는

구조물, 조각들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석굴이 수행승과 불자들의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되어 석굴 안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부처의 모습과 가르침 그리고 일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장인 아잔타석굴에서는 우선 수행의 공간으로서의 석굴에 대한 설명, 인도의 여러 신들과 불교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아잔타석굴의 역사(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의해 발견되었는지 등)도 빼놓지 않는다. 이후 구체적으로 아잔타 26굴로 눈을 돌려 그 안에 조성된 불탑, 열반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불탑의 세계관은 어떠한지, 불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열반상의 세부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석가모니 붓다가 누운 방식, 석가모니가 행한 기적의 장면 등을 자세히 언급하여 부처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친절한 설명을 따라 한 눈에 보는 석굴  
여태껏 석굴에 대한 책은 석굴암이나 중국의 둔황, 운강석굴 등 한 석굴의 부분부분을 불교 미술의 예로만 접해왔다. <세계의 석굴>처럼 각 석굴에 대한 균형 잡힌 설명을 하면서도, 불교의 전래 과정이라는 시간적 틀이나, 문화교류라는 관점으로 여러 석굴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책은 없었다.

저자 배재호는 20년 이상 불교 미술을 연구했던 전문가답게 <세계의 석굴>의 모든 석굴을 면밀히 답사, 조사하면서도 불교 미술에서 드러나는 문화교류라는 개인적 관심사를 놓지 않았다. <세계의 석굴>은 이 같은 관심사를 반영된 책으로, 각 석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면서도 여러개의 석굴을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세계의 석굴>은 한계의 전문가가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일반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이는 불교신론 논설과 문화재단의 칼럼,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대학 특설강좌 등의 활동을 통해 일반 독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저자의 경험 덕분이다. 실제로 이 책은 저자의 박물관대학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저자를 따라 세계의 석굴 구석구석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느새 익숙한 부처님 말씀을 새롭게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질 않네

바람이 멈추지 않네  
글 안재민 | 사진 안재민 정영자  
쌤애펜터 펴냄 | 1만 4천원



“일주일 뒤에 다시 그곳을 찾았다. 염불암에 도착하니 그제야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해온 김밥으로 아침을 먹고 나는 맑은편 산으로 향했다. 멀리서 바라보니 기다리기 지루했는지 어머니가 따사로운 햇빛 아래 꾸벅꾸벅 졸고 계셨다. …(중략)

혹시나 길을 잃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 근처를 벗어나서 말라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대문 앞에서 퇴근하는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와는 다른 기다림이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벌써 십여 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의 진척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재촉하거나 잔소리하는 법이 없다. 지금껏 묵묵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 …(중략)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기로 했다. 막연한 것이라도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나도, 어머니도, 알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만,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을 테니까.”

아들은 방송국 PD일을 그만두고 나서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절집 공양주 보살 취재를 위해 비슷한 연배에 불임성 좋은 어머니와 동행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모습을 한두 장 사진에 담았고, 어느새 사진 작업의 주인공은 어머니로 바뀌었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우리네 보통 어머니. 아들이 고3일 때는 팔공산 깎바위에 가서 정성을 다해 기도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들 자취집에 가 골뎠드는 줄도 모르고 우렁각시 노릇을 해왔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끔은 신세한탄도 늘어놓지만, 예쁜 꽃을 보면 아이처럼 좋아하고, 멋진 풍경 앞에서 아낌없이 감탄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머니다.

아들이 대학 신입생 때 ‘사진을 배우보라’고 권했던 어머니는, 졸업 후에도 번듯

한 직장을 마다하고 끝끝내 사진을 놓지 못하는 아들이 속상하고 못마땅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과 함께 다니며 아들의 일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급기야 “나도 사진이나 배우볼까?” 하게 된다. 옆에서 보고 배운 눈썰미 덕분일까? 진정성이 담긴 따뜻한 사진들을 적적 찍는 수준에 이른다.

모자(母子)는 그렇게 함께 1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찍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가슴에 담았다. 2월말 매화꽃이 피는 산청, 등백꽃이 후두둑 떨어지는 3월의 강진, 4월의 청산도 보리밭, 연꽃 피는 8월의 부여, 배롱나무 꽃이 피는 담양 소재원, 민둥산에 역사가 만발한 10월의 정선, 한겨울의 영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한 그 따뜻했던 시간과 공간의 기억들을 차곡차곡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12년여 동안 20만 km, 1천여 곳 돌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가슴에 담았다

모녀(母女)와 달리 모자 사이는 골살맞은 애교도 없고 서로에게 그리 살뜰하지도 않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에게 특특 내뿜는 말들은, 가슴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목직한 울림과 감동을 준다. 그래서 마치 이 책 자체가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못 다한 내 마음속의 이야기 같다.

잊고 싶었던 사자성어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는 태어나서 60일 동안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키우고, 자라나면 새끼가 어미를 같은 기간 동안 먹여 살린다고 한다. 이들이야말로 현대판 반포지효가 아닐까? 이 책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한 어떤 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이 더 약해지기 전에, 마음을 표현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 넌지시 권유한다. 책의 제목 ‘바람이 멈추지 않네’는 ‘풍수지탄’의 뜻에서 따온 말이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다. 부모님께, 스승님께, 또는 주변의 고마운 분들께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담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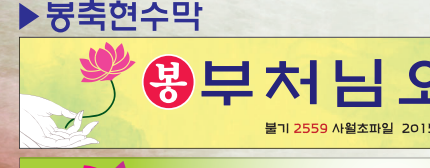
▶ 봉축 리본



▶ 지하철현수막



▶ 봉축현수막



▶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 세로거치형 현수막



▶ 종이등표



▶ 종이리듬등



▶ 가야비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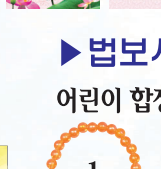
▶ 차걸이



▶ 종이리듬등



▶ 법보시 염주



▶ 오색 합장주



▶ 경면주사 합장주



▶ 합장주



▶ 오색 108염주



▶ 오색 108염주(6mm)



▶ 합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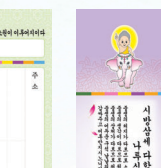
▶ 비닐만일등(연꽃/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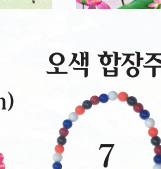
▶ \*공단실크/수입사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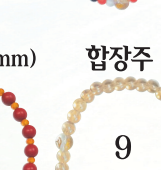
▶ \*황금등



▶ \*자비연등



▶ \*가



▶ \*가



▶ \*가



불교장엄용품 전문  
가 야 기 희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가 격 할 인 예 외 품 목